

## 제39회 국민독서경진 수원시대회 수상자 명단

### □ 운영부문

부 문	부 별	훈 격	수 량	수상대상자	비 고
운영부문	문 고	최우수 (시장상)	1	정2문고	
		우 수 (의장상)	1	매탄3동문고	
		장 려 (새마을회장상)	1	평동문고	
		입 선 (시문고회장상)	1	화서1동문고	

### □ 독후감(단체부)

부 문	훈격별	수량	단체(학교)명	출전자성명	도 서 명
계		2			
초 · 중 · 고	최우수 (시장상)	1	숙지초	1-1 강은성 1-2 신채원 2-1 최예지 2-2 오승아 3-1 강주연 3-2 원예진	빨리 만나고 싶어 쿵쿵이의 대단한 습관이야기 달 샤베트 팽이나무에 팽이 열렸네 바다를 꿈꾸는 기형 물고기 프린세스 코튼의 여름휴가
	우 수 (의장)	1	숙지초	4-1 정운서 4-2 신정민 5-1 이수예 5-2 이가은 6-1 신의정 6-1 조민주	다른게 틀린건 아니잖아? 착한 설탕 사오너라 골든 아워 이 기사 써도 되나요? 네버 불링 스토리 몽실 언니

□ 독후감(개인부 - 초등부 저학년)

부 문	훈격별	수량	소속 및 성명	도 서 명
계		9		
초등부 저학년 (9)	최우수 (시장상)	1	숙지초 3-1 강주연	바다를 꿈꾸는 기형 물고기 프린세스
	최우수 (교육장상)	1	능실초 3-9 이민채	개똥 브라더스
	우 수 (의장상)	1	송림초 1-1 이서희	프레드릭
	장 려 (새마을 회장상)	2	숙지초 1-1 강은성 조원초 3-2 안성현	빨리 만나고 싶어 줄무늬가 생겼어요
	입 선 (문고 회장상)	4	숙지초 3-2 원예진 산남초 1-3 한진현 울전초 2-2 최재운 천천초 3-5 박시우	코튼의 여름 휴가 파란 개구리 빨간 개구리 여우나무 달려라, 나스

□ 독후감(개인부 - 초등고학년)

부 문	훈격별	수량	소속 및 성명	도 서 명
계		10		
초등부 고학년 (10)	최우수 (시장상)	1	효천초 6-5 송재민	서찰을 전하는 아이
	최우수 (교육장상)	2	숙지초 4-1 이승은 수일초 6-1 이병찬	바람과함께 사라지다 빨간 머리 앤
	우 수 (의장상)	1	상률초 4-1 방가은	아낌없이 주는 나무
	장 려 (새마을 회장상)	2	태장초 6-2 이가람 송죽초 5학년 이주원	이어도에서 온 선물 행복한 왕자
	입 선 (문고 회장상)	4	울전초 6-2 이소정 매현초 6-1 김가현 송원초 4-4 김나운 조원초 4학년 김제니	4차 산업 혁명이 바꾸는 미래 세상 대기만성 손만성 잘못 뽑은 반장 백성들을 사랑한 세종대왕

□ 독후감(개인부 - 중.고등부 및 일반부)

부 문	훈격별	수량	소속 및 성명	도 서 명
중 고등부 (10)	최우수 (시장상)	2	유신고 2학년 오수영 정천중 1-1 권정우	프랑켄슈타인 씨앗을 부탁해
	우 수 (의장상)	2	정천중 1-1 권정운 정천중 1-3 이지수	생각이 크는 인문학-자유 왜 함무리비 법전을 만들었을까
	장 려 (새마을 회장상)	2	천천중 2-4 이채윤 대평중 2-7 김민지	변신 알리아스
	입 선 (문고 회장상)	4	수원북중 1-3 박예은 창현고 1학년 박성인 경기북과고 1학년 이준우 수원여고 1-9 위자연	나쁜 기억 세탁소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 언어의 온도
일반부 (7)	최우수 (시장상)	1	호매실동 정윤희	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사과나무숲
	우 수 (의장상)	2	인계동 윤덕순 영통2동 변태숙	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더 이상 착하게만 살지 않기로 했다
	장 려 (새마을 회장상)	2	서둔동 김미화 호매실동 박범용	딸은 엄마보다 한 발짝 느리다 빠빠
	입 선 (문고 회장상)	2	울천동 김영빈 원천동 김혜은	모비딕 논어

□ 우수지도교사 상장

부 문	훈 격	수량	소속 및 성명	비 고
계		1		
종 합	최우수	시장상장	1	숙지초등학교 교사 나운철

□ 편지글 부문

부 문	훈격별	수량	소속 및 성명	제 목
계		7		
종 합 (7)	최우수 (시장상)	1	화홍중 3-1 민지수	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엄마에게 쓰는 편지
	우 수 (의장상)	2	천일초 3-2 이도현 화양초 6-4 김지민	엄마께 사랑하는 엄마께
	장 려 (새마을 회장상)	2	박윤희 천일초 6-1 이윤지	LOVE MY MOM AND MY DAD
	입 선 (문고 회장상)	2	김동명 김명희	엄마 생각 나의 올케 문정에게